

“환경관리의 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 (주)삼립식품 환경팀

김
성
곤
주
임



‘환경과 정보화의 시대’로 일컫는 21세기가 왔다. 세계는 지금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대기 및 수질의 개선, 생태계 복원, 폐기물처리 신기술, 다이옥신 제거기술 개발 등 각종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의 선진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뒤질세라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 ‘환경선진국’을 향한 노력이 활발하다. 또한 각 기업의 환경관리 현장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 개선작업을 위해 많은 환경관리인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주)삼립식품 환경팀의 김성곤 주임(32세)도 그 중 한 사람이다. 21세기 환경선진국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그의 욕망을 ‘이달에 만난 환경인’에서 들어보았다. — 편집팀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단순 관리보다는 배출시설 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개발 및 도입 문제에 우리 환경관리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 주임의 짧은 첫마디이다.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의 김 주임이지만 환경관리인의 자세에 관한 첫 목소리는 진지하다 못해 진취적이다. 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원래 꿈은 멋진 마도로스가 되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전공도 해양학을 택했습니다. 해양학을 공부하다 해양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던 중 환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졸업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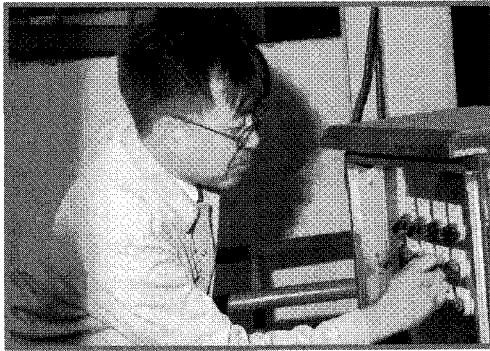
시에 취직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95년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양대 해양학과 졸업과 동시에 (주)삼립식품 환경팀에 입사한 김성곤 주임은 '바다사나이'의 꿈을 접고 환경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 디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그의 모습은 한 기업의 환경을 책임지는 의젓한 중견 환경관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지난 '95년 서울에서 이곳 시화공단으로 본사 및 공장을 옮긴 (주)삼립식품은 '삼립빵'으로 일반인에게 친숙한 제과업체로서 일일 폐수처리용량 650톤, 8톤 보일러 2기, 0.35ton/h 소각로 1기를 갖춘 대기 1종, 수질 3종 사업장이다. 법정관리, IMF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지난 '99년의 환경투자비용이 2억5천만원에 달했다고 김 주임은 은근히 자랑한다. 현재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환경비용 절감을 위해 EMS(자동측정망 무인화설비)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환경시설에 대한 설비투자과 자율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오염물질배출 최소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환경부문 만큼은 어느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지닌 김 주임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지난 '97년, 방류수의 BOD 농도가 평소보다 열 배 이상 높아진 사건이 발생한 일이다. 빵속에 들어가는 야채재료를 환경팀에 아무런 통보 없이 사용해 일어난 일. 폐수처리장 용량은 늘릴 수 없고, 정말 난감했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김 주임의 능력이 발휘됐다. 시화공단의 한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 연구한 전기응집조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폐수처리 공정에 도입해, 폐수의 유기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전기응집조 설치 후 BOD농도가 정상



“환경보전의 절대성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환경관리인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인 모두가 각 사업장, 나아가 국가 환경관리의 초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당당한 업무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김 주임은 기뻐한다.

철저한 환경관리 만큼 김 주임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또 하나 있다. 바로 '환경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이다.

“회사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지역 환경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해 지역 주부환경감시단, 인근 고등학교 학생 등 많은 수의 주민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수립은 물론, 살아있는 환경교육장으로서의 기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성곤 주임은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환경관리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환경보전의 절대성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환경관리인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인 모두가 각 사업장, 나아가 국가 환경관리의 초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수질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김 주임은 “환경관리인 6년 동안 비현실적인 법 규정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환경관리인이 어깨를 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